

천주교 하와이 한인성당

KOREAN CATHOLIC CHURCH OF HAWAII
2949 Kahawai St. Honolulu, Hawaii 96822



남북통일 기원 미사

(Twelfth Sunday in Ordinary Time)

오늘의 말씀:

내가 너에게 말한다. 일곱 번이 아니라
일흔일곱 번까지라도 용서해야 한다. (마태오 18,22)

제1독서(신명기 30,1-5)

신명기 문헌은 하느님의 말씀을 법령규정집으로 정한 바벨론 유배 중에 종합된 작품입니다. 나라를 빼앗긴 비참한 상황 속에서 율법학자는 그 근본원인을 하느님의 말씀을 이행하지 않았다는 불성실에서 찾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떠한 경우든 하느님의 말씀을 듣고 따르고 실천을 다짐하는 결의가 신명기의 핵심입니다. 요시아의 미완의 종교개혁, 그리고 바벨론 유배 중의 아픈 체험을 기초로 신명기 편집자는 하느님 말씀에 대한 충실성, 바로 오늘 우리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그 말씀을 실천해야 한다는 실존적 행위를 강조합니다. 즉 하느님의 말씀을 실천해야 하는 것이 하느님 말씀에 대한 충실성임을 알게 됩니다. 축복과 저주는 하느님께서 주관하시는 것이지만 그것은 동시에 우리에게도 책임이 있습니다. 자유를 지닌 우리가 하느님의 말씀과 규정을 지금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지켜 나갈 때 우리는 축복을 받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어긴다면 저주를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원은 인간학적 측면에서 본다면 우리 자신의 선택에 달려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명기 저자는 바벨론 유배라는 절망의 상황을 지내고 있는 백성들에게 조상들의 해방의 삶을 환기시키고 그들이 어떻게 역경을 극복해 왔는지 그리고 지금의 고통이 무엇 때문에 생겼는지 그 근본적인 이유와 배경을 하느님 말씀에 대한 열정과 율법준수 여부에 있다고 확신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우리들도 분단 극복과 일치와 화해실현의 기본 원리는 하느님 말씀의 충실한 따름과 회개임을 알아야 하겠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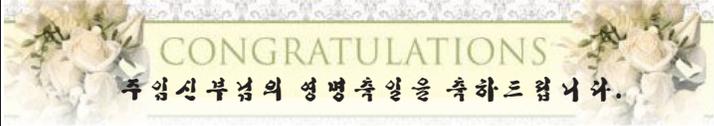
제2독서(에페 4,29-5,2)

에페소서간은 우주만물의 중심인 그리스도를 고백하면서 그리스도를 통해 이루어질 평화와 화해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오늘 2독서를 통하여 그리스도인들은 그리스도를 윤리 도덕의 모범으로 삼아야 한다는 것을, 이웃에 대한 사랑의 정신으로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모든 것을 그대로 행해야 한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자신의 말과 행동으로 이웃을 감동시키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서로 용서해야 합니다. 용서는 예수님께서 인류를 사랑하신 그러한 사랑의 삶을 살라는 권고와 명령이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서로 용서하고 약하고 가난한 이

웃에 대한 관심을 갖고 사랑을 실천해야 합니다. 이제 주님의 기도를 다시 한 번 돌아볼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저희에게 잘못된 이를 저희가 용서하오니, 저희 죄를 용서하시고...” 용서는 하느님께서 주시는 은총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거저 받은 것을 이웃에게 거저 주어야 하겠습니다. 이제 이러한 모습과 마음으로 그리스도인은 민족의 일치와 화해를 위한 지금 이 시대에 아름답고 향기로운 제물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복음(마태 18,19-22)

마태오 복음 18장은 그리스도인의 연대성과 일치성 그리고 용서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오늘 복음도 그러한 내용이 잘 표현되어 있습니다. 사람은 사회적 존재입니다. 사람은 결코 홀로 공동체를 구성하지 못합니다. 둘 이상이라는 공동체의 기본원리에서 교회공동체의 원리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둘이라는 숫자적 개념보다는 마음을 모으는 것이 우선입니다. 이것이 교회공동체의 기본원리인 것입니다. 두세 사람이 마음을 모아 기도하는 곳 바로 그곳이 그리스도의 현존을 실현시킬 수 있는 바탕이 됩니다. 그리스도께서는 당신의 신적 능력으로 우리 안에 현존하십니다. 두세 사람이 모인 그 현상이 지금 내가 모인 그 자리가 바로 그리스도의 현존을 실현시킬 수 있는 바탕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 말씀을 통하여 당신의 신적 초월성과 함께 부활을 통한 보편적·내적 현존성을 우리는 확인합니다. 또한 기도를 통하여 우리는 용서를 할 수 있고 용서 받을 수 있습니다. 복음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일곱 번이 아니라 일흔일곱 번까지라도 용서해야 한다.”의 “일흔일곱 번”이라는 표현은 숫자의 개념을 넘어서 무한히 용서하라는 가르침이십니다. 7이란 숫자의 상징성과 함께 7의 10배인 70이란 숫자성, 상징성 등 겹쳐진 의미의 490번이란 이 숫자는 숫자의 개념을 넘어서 끝없이, 무한히 용서하라는 가르침입니다. 용서는 하느님의 자비와 은총을 받은 인간이 행할 수 있는 가장 아름다운 덕행이며 선행입니다. 용서는 이렇게 가장 위대한 가치입니다.



오늘의 미사

제 1독서 신명기 30,1-5

화답송

◎ 주님, 흠어진 당신 백성을 모으소서.

- 민족들아, 주님의 말씀을 들어라. 먼 바닷가 사람들에게 이 말을 전하여라. “이스라엘을 흠으신 분이 그들을 다시 모으시고, 목자가 양 떼를 돌보듯 지켜 주시리라.” ◎
- 정녕 주님은 야곱을 구하셨네. 강한 자의 손에서 구원하셨네. 그들은 환호하며 시온 산에 올라와, 주님의 선물을 받고 웃으리라. ◎
- 나는 슬픔을 기쁨으로 바꾸고 위로하리라. 그들의 근심을

거두고 즐거움을 주리라. 사제들에게는 기름집 것을 배 불러 먹이고, 내 백성을 내 선물로 가득 채워 주리라. ◎

제 2독서 에페소서 4,29-5,2

복음환호송

◎ 알렐루야.

- 주님의 교회는 하나의 빛, 온 세상에 퍼져 있어도 갈라지지 않으리라. ◎

복 음 마태오 18,19-22

영성체송 콜로 3,14 참조

사랑은 완전하게 묶어 주는 끈이니, 무엇보다 사랑을 입어라.



성경은 왜 이렇게 말할까?

III 하느님은 왜 사람이 되셨을까?

3. 부활, 믿음의 알파요 오메가

명예를 가볍게 메는 기술

그리스도의 부활과 참평화를 이루기 위해서는 제 십자가와 명예를 기꺼이 멜 수 있어야 한다. 명예를 메는 것은 '광생구속'의 믿음을 구체적으로 살아가는 길이기 때문이다. 신앙은 말뿐 아니라 스스로 한 말을 실천하며 책임을 지는 것이다.

날마다 주어지는 명예를 메지 않는 사람은 삶을 피하는 것과 같다. 자신에게 주어진 명예를 그리스도와 함께 받아 짊어진다. 그 무게는 한결 가벼워질 것이다. 영성가들은 명예를 가볍게 메는 네 가지 비결을 이렇게 제시한다.

첫째는 자기 내면의 힘을 자각하는 것이다. 우리는 먼저 명예를 질 수 있다고 자신을 신뢰해야 한다. 주님께서서는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일을 주시지 않기 때문이다. 둘째는 무거운 명예를 지고 있더라도 상당한 거리를 이동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다. 셋째는 오로지 사랑을 위해 주어진 명예의 무게를 기꺼이 받아들여 자유롭게 사는 것이다. 넷째는 짊어진 명예가 무거울수록 그리스도께서 함께 명예를 메고 계심을 믿는 것이다.

끝까지 된 성자

프랑스 육군 사관생도였던 샤를 드 푸코(1858-1916)는 십자가와 부활의 삶을 아름답게 살아낸 사람이다. 그는 젊은 시절 큰 목표를 세우고 가능한 많은 경력과 최고 점수로 진급하여 빠른 성공을 거두고자 했다.

그러나 회심 후 그의 삶과 목표와 방향은 완전히 바뀌었다. 첫 자리를 버리고 가장 낮은 자리를 찾은 것이다. 푸코는 농담처럼 이렇게 말했다. "마지막 자리는 이미 예수님께서 차지하셨기 때문에 나는 마지막에서 두 번째 자리로 만족하게다." 오랜 방황 끝에 하느님을 찾은 푸코는 나자렛 예수님의 가난하고 미천한 노동자의 숨은 삶을 본받고자 했다. 그는 가장 가난한 아프리카 유목민들과 함께 살을 나누다가 바로 그곳에서 예수님처럼 살해되었다.

푸코는 애써 그리스도의 메시지를 전하지 않았으며, 다만 가난하고 소외된 이들 가운데 한 사람으로 그들과 똑같은 모습으로 함께 살았을 뿐이다. 푸코는 '금세기에 우리가 만날 수 있는 가장 위대한 하느님의 사람'이라는 칭송과 함께 세상 가운데 살면서도 세속에 물들지 않은, 우리 시대의 위대한 성자로 존경받고 있다.



(다음 주에 계속됩니다)
출처: 광승룡/바오로딸 출판사

178개 나라 중에서 행복지수가 102위에 해당한다. 그것은 질서가 무너졌기 때문이다. 자식들에게 분별없이 경제적 원조를 해주는 것이 진정한 행복을 위한 길인지 생각해봐야 한다. 출처: 평화신문 2012.8.5



왕상연 신부의 행복특강



(14) 평균 수명 100살, 노후 대책은 안녕하십니까?

21세기는 노인의 시대다. 120년 만에 고령화 사회로 진입한 프랑스와 달리 우리나라는 26년 만에 진입했다. 평균 수명 100살이 먼 훗날 이야기가 아니다. 노후 대책 없이 자식들의 교육비에 가진 돈을 다 쓰고, 그나마 남은 돈마저 자식들에게 물려준다. 노후 대책보다 자식 교육을 우선 순위로 두고 있는 부모들이 많기 때문이다. 자식을 잘 키우면 나이들어 호강할 것이라는 무의식 속 착각도 큰 몫을 한다. 하지만 자식은 10살까지만 '품 안의 자식'이지 그 이후부터는 점점 멀어지는 게 현실이다.

1인당 대학 졸업을 시키기 위해서는 2억 5천만 원, 한 집에 두 명만 대학에 가도 5억이 든다. 고학력자가 넘쳐 나지만 20대 실업자는 100만 명이 넘고, 기술 현장에서는 구직자가 부족하다. 독일은 중학교 때부터 대학공부 할 사람과 기술직에 종사할 사람들을 구분 짓는다. 자신들의 성향에 맞는 직업을 찾는 일에 어려서부터 훈련을 하는 것이다.

나이를 먹으면서 몸의 구석구석이 고장 나기 시작한다. 몸이 아프면 짜증이 늘고 점점 애가 되어 간다. 몸이 늙고 아픈 곳이 생길수록 자식들이 눈치껏 돌봐주었으면 하지만 자식들은 무심하다.

노년이 되면 또 하나의 문제는 친구가 없다는 점이다. OECD 국가 중 노인 자살률이 1위이다. 홀로 사는 노인들이 외로운 때문에 자살률이 높은 일본을 제쳤다. 우리나라의 노인 자살률의 이유 중에는 경제적인 이유도 크다. 나이가 들어서 돈이 없으면 심리적으로 자신감이 줄어들기 마련이다. 젊었을 때처럼 다양한 친구들과 만나지 못한다.

마지막으로 가장 큰 문제는 평생 사랑을 쌓아오지 않은 부부가 50년 이상을 함께해야 한다는 것이다. 부부는 20대에 맞지 않으면 30대에 맞추고, 또 살다 안 맞는 부분이 있으면 40대에 고쳐가며 살아야 50대에 애인처럼 살 수 있다. 자식 키우는 데 열중했던 아내와, 직장에서 돈 버는 데에만 신경 쓰던 남편이 노년에 금실 좋은 부부로 살기 위해선 생각보다 많은 노력이 필요하다.

명품 상점들이 많기로 유명한 프랑스 상젤리제 거리의 레스토랑에서 와인을 마시는 사람들은 대부분 노인이다. 젊은 사람들에게는 비싼 가격이기 때문이다. 이탈리아의 값비싼 음식점에서도 노인이 여유롭게 식사를 하는 모습을 쉽게 볼 수 있다. 우리나라는 거꾸로 돌아가고 있다. 비싸고 맛있는 음식점에는 노인들이 없다. 탑골공원에서 그 노인들을 볼 수 있다. 평생 열심히 살며 모은 돈으로 여유를 즐기는 노인은 적고 부모의 돈으로 아무 의미 없이 돈을 쓰는 젊은이는 많다.

뿌리가 튼튼해야 나무도 튼튼하다. 그래야 열매도 풍성히 맺는다. 우리 사회의 노인은 뿌리와 같은 존재다. 더욱이 고령화 시대로 접어들어 노년 행복은 우리 사회의 과제이기도 하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좌측으로 이어집니다)

옥 치과 일반치과, 신경치료, 응급치과 옥 선남 안드레아 / 946-2875, 955-9709	묘 지 판 매 Valley of the Temples Memorial Park 김병희(안젤라) / 728-9254	라이언(베다) 최, CPA회계법인 597-8271 / cpachoi@gmail.com www.ryanchoicpa.com	최 지압원 각종통증/교통사고/직장상해/보험처리 / 497-1111
옥돌사우나 하와이에서 제일 좋은 사우나 589-1800 / 1215 Kona St., Hon.	초원한의원 1411 S. King St., #204() 원장 전 에스더 / 383-6222	최 니콜 부동산 732-5004, (c)225-5566 www.choihawaii.com	심신치유센터 1188 Bishop St., #3005, Hon. HI 김옥석 마리아 / 521-5990
김남훈(베드로) CPA 회계감사, Book Keeping, 세금보고 947-2470	노경구 부동산 각종 부동산 매매 (노경구 알로이시오) 955-5775 / realty99@pixi.com	코아 택시 & 관광 24 Hour Service () 944-0000/926-1004	동양관광여행사 항공권도매/성일주/이웃섬관광/호텔예약 944-3949/orientour1988@yahoo.com

'성당 홈페이지(kcchi.com)에 가시면 컬러판 주보를 받아 보실 수 있습니다.'



좋은 글 좋은 생각

화나고 힘들 때 이렇게 해보세요.

1. "참자!" - 그렇게 생각하라.
감정 관리는 최초의 단계에서 성패가 좌우된다. "욱"하고 치밀어 오르는 화는 일단 참아야 한다.
2. "원래 그런 거" - 라고 생각하라.
예를 들어 고객이 속을 상하게 할 때는 고객이란 "원래 그런 거"라고 생각하라.
3. "웃긴다" - 고 생각하라.
세상은 생각할수록 희극적 요소가 많다. 괴로운 때는 심각하게 생각할수록 고뇌의 수렁에 더욱 깊이 빠져 들어간다. 웃긴다고 생각하며 문제를 단순화 시켜보라
- 4 "좋다. 까짓 것" - 이라고 생각하라.
어려움에 봉착했을 때는 "좋다. 까짓 것" 이라고 통크게 생각하라. 크게 마음 먹으려 들면 바다보다 더 커질 수 있는 게 사람의 마음이다.
5. "그럴 만한 사정이 있겠지" - 라고 생각하라.
억지로라도 상대방의 입장이 되어 보라. 내가 저 사람이라도 저럴 수밖에 없을 거야~ 뭔가 "그럴 만한 사정이 있어서" 저럴 거야~ 라고 생각하라.
6. "내가 왜 너 때문에" - 라고 생각하라.
당신의 신경을 건드린 사람은 마음의 상처를 입지 않고 있는데, 그 사람 때문에 당신이 속을 바글바글 끓인다면 억울하지 않은가. 내가 왜 당신 때문에 속을 썩어야 하지? 그렇게 생각하라.
7. "시간이 약" - 입을 확신하라.
지금의 속상한 일도 며칠 지나면, 아니 몇 시간만 지나면 별 것 아니라는 사실을 깨달아라. 너무 속이 상할 때는 "시간이 약" 이라는 생각으로 배짱 두둑히 생각하라
8. "새옹지마" - 라고 생각하라.
세상 만사는 마음 먹기에 달렸다. 속상한 자극에 연연하지 말고 세상 만사 "새옹지마" 라고 생각하며 심적 자극에서 탈출하려는 의도적인 노력을 하라.
9. "즐거웠던 순간" - 을 회상하라.
괴로운 일에 매달려다 보면 한없이 속을 끓이게 된다. 즐거웠던 지난 일을 회상해 보라. 기분이 전환 될 수 있다
10. "눈을 감고 심호흡" - 을 하라.
괴로운 때는 조용히 눈을 감고 위에서 언급한 아홉 가지 방법을 활용하면서 심호흡을 해 보라. 그리고 치밀어 오르는 분노는 침을 삼키듯 "꿀꺽" 삼켜 보라.

-좋은글 중에서-



청소년프락

내 것을 좋아하는 법

한 여행객이 양을 치고 있는 목동에게 물었습니다.
"목동 양반, 오늘 날씨가 어떨 것 같소?"
목동은 대답했습니다.
"내가 좋아하는 날씨라오."
여행객이 다시 말했습니다.
"내가 좋아하는 날씨일지 아닐지를 어떻게 안단 말지요?"
목동이 말했습니다.
"지난 일을 돌아보면 늘 내가 좋아하는 것만 가질 수 없었죠. 그래서 나는 무엇이든지 내가 가진 것을 좋아하게 되는 법을 배웠습니다. 그러니 오늘도 내가 좋아하는 날씨가 될 것은 분명하오."
이 세상에 행복과 불행은 구별되어 존재하지 않습니다. 같은 일이라도 어떤 사람에게는 행복하고 다른 사람에게는 불행합니다. 똑같은 환경을 대하면서도 어떤 사람은 아주 최악이라고 생각하고, 어떤 사람은 최고의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행복이나 불행을 가져다주는 것은 나의 마음입니다. 생각만 바르게 된다면 지금이라도 나는 당장 행복해질 수 있습니다. 그러니 마음이 바르지 못하면 지금 바로 불행해질 수 있습니다.
-작은 이야기가 주는 큰 희망-



웃음마당 무지 빠른 거북이 2.

거북이가 걸어가다가 벽에 부딪혀 뒤집혔다. 지렁이와 달팽이가 이를 경찰에 신고하자 출동한 경찰,
"어떻게 된거예요?"
지렁이와 달팽이가 하는 말,
"거북이가 너무 빨라서 안 보였어요...."



토다이 Restaurant/ 부페 1910 Ala Moana / 힐턴 호텔 건너편 매니저 Justin Kim / 947-1000	프로디자인 모든 인쇄, 간판 특수제작 하 미카엘 / 488-7777	영어 개인지도(SAT/영어/수학/과학) 미국인 교사 방문 지도 상담: 우 아네스 (677-5926)	Han's Gallery 좋은 그림,조각품 있습니다 / 396-5775 Koko Marina Center /
State Farm Insurance 자동차, 집 & 생명보험 전문 (Agent) / 524-9997	데레사 모리스 변호사 이민·상법·교통·상속 / 397-9477 "한국어로 상담합니다"	마우나케아 힐링센터 한방침술/항노화/신체해독/여성전문 한방클리닉 1451 S. King st./941-7799/354-3775	~광고신청~ 사무실 / 988-9678 kccmanoa@hotmail.com
~광고신청~ 사무실 / 988-9678 kccmanoa@hotmail.com	~광고신청~ 사무실 / 988-9678 kccmanoa@hotmail.com	주보관련 의견/글/기도 김용태 요셉 / 294-5150 kccjubo@gmail.com	주보 공지사항/광고신청 사무실 / 988-9678 kccmanoa@hotmail.com

함께 나누고픈 좋은 글이나 주보관련 의견이 있으시면 연락주세요. kccjubo@gmail.com 김용태 요셉(294-5150)